

‘군민 불편 해소’ 공감 행정 만전 주거 안정 · 지역 활력 ‘탄력’

최영일 순창군수, 마을방문 · 군정설명회 건의사항 처리계획 보고회 개최

최영일 순창군수가 지난 28일 '2025년 마을방문 및 군정설명회 건의사항 처리계획 보고회'를 주재하며, 군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기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28일부터 오는 5월 1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보고회는 연초 320개 마을방문과 11개 읍면 군정설명회에서 접수된 건의사항 878건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고자 마련됐으며, 각 부서장과 담당 팀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다.

총 878건의 건의사항은 마을 방문에서 803건, 군정 설명회에서 75건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도로시설과 지역개발을 담당하는 건설과가 364건으로 가장 많은 건의가 접수됐으며, 이어 건강장수와, 경제교통과, 안전재난과 순이다.

각 부서는 건의자 면담과 현장 출장 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처리계획을 수립했으며, 보고회에서는 연내 완료 예정, 추가경정예산 편성, 상급 기관 건의와 타 기관 이첩, 장기 검토 및 시행 불가 등 다양한 처리 방향에 대해



최영일 순창군수가 지난 28일 '2025년 마을방문 및 군정설명회 건의사항 처리계획 보고회'를 주재하며, 군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기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적극적으로 논의했다. 특히 부서 간 업무연찬을 겸해 여러 부서가 함께 참여하는 협업형 보고회로 진행돼 눈길을 끌었다. 최영일 군수는 첫날 보고회에서 “건의사항과 추진 중인 사업들을 신속하고 투명하게 처리하고, 분기별로 추진 상황을 점검해 군민이 직접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힘써달라”면서, “부서

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군민 불편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해소하는 데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순창군은 2025년 연초 마을방문과 군정설명회 시 전년도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하며 군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공감 행정을 계속해가고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노인 정신건강 강화 ‘오늘도 스마일 시니어’

남원시정신건강복지센터,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남원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고령 인구 비율이 높은 우리 시 특성에 맞춰 노인 정신건강을 지원하는 맞춤형 프로그램 ‘오늘도 스마일 시니어’를 4월부터 5월까지 총 5회기에 걸쳐 남원시노인복지관에서 운영 중이다.

이 프로그램은 노인의 사회적 연결성 증진과 고립 예방을 주요 목표로 하며 다양한 활동과 상호 교류를 통해 정신적 문제를 사전 예방하고 건강한

수면 습관 형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프로그램 종료 후 정신건강 스크리닝 검사를 통해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하고, 필요 시 개별 상담을 제공할 예정이다. 정신건강 상담 기록과 진료비 부담으로 정신과 상담을 어려워하는 어르신들을 위해 마음건강 주치의 서비스와 전문의 상담을 연계하여 접근성을 높이고 인식 개선을 도모하고자 한다. 또한 어르신들이 서로 소통

하고 교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며,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정신건강 스크리닝 검사 및 교육 ·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사회적 고립감을 완화와 지역사회 내 연대감을 형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보건소 고미주 치매안심과장은 “지역사회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는 등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 농촌공간 재구조화 주민설명회 마무리

남원시는 지난해 12월 18일부터 4월 24일까지 총 20개 읍·면·동(농촌지역)을 대상으로 농촌공간 재구조화 주민설명회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각 읍·면·동 이·통장 및 주민대표들을 대상으로 농촌공간 재구조화 제도의 개념과 추진방향을 안내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 특성을 충분히 반영한 계획 수립을 위해 진행되었으며, 시는 주민설명회와 별도로 지역 주민들과의 설문조

사, 각 읍·면·동장 심층 인터뷰를 통해 지역별 특성과 수요를 파악했다. 주민들은 일자리 창출과 고령화 문제 해결, 정주 여건 개선 및 농촌 특화작물 육성 등을 강조하며, 지역의 현실적 여건과 미래 수요를 적극 반영한 맞춤형 계획 수립을 요청했다.

특히 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제시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방침, 농촌공간 계획 활성화방안 등”에 따라, 농촌특화지구 지정을 통한 주

거·정주여건 개선, 농촌생활서비스시설 확충, 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농촌 경관·환경 보존, 관리 등의 중장기 목표를 설정하고, 농촌공간 재구조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통해 체계적인 발전 전략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남원시는 앞으로 지역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을 위해 농촌협약을 통한 농림축산식품부의 통합 지원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농촌공간 재구조화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군, 전북형 반할주택 공모사업 최종 선정

임실군이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개발공사가 주관한 2025 전북형 반할주택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군은 전북형 반할주택 공모에 최종 선정됨에 따라 도비 80억원을 지원받게 됐다고 29일 밝혔다.

그동안 군은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해 6월 전북개발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1월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재정투자심사 협의 면제를 받았다.

이를 기반으로 임실고와 임실군청 중간지점인 사업장부지(15필지 9,299㎡)를 중심으로 공모사업을 철저히 준비해 왔다.

이번에 전북형 반할주택에 임실읍(120세대)이 선정됨에 따라 관촌면(120세대)과 오수면(80세대) 등과 함께 320세대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됐다.

군은 임대아파트 건립으로 육군 제35사단과 6탄약창에 근무하는 군무원들과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주거지를 공급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임실군은 인구 감소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전북형 반할주택(공공임대주택)은 전용 59㎡ 규모의 반값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청년과 신혼부부, 귀농·귀촌 가구 등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과 지역 활력을 동시에 도모한다.

특히, 10년 임대 후 분양전환이 가능한 공공임대주택 형태로, 안정적인 임대료로 생활여건 개조사업의 일환으로 경관개선 프로그램을 추진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임실군, 주민 · 자원봉사단체 연계 경관개선 진행

임실군이 강진면 백련마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의 일환으로 경관개선 프로그램을 추진했다.

백련마을은 ‘연꽃처럼 깨끗하고 행복이 피어나는 백련마을’이라는 슬로건 아래, 주민 주도의 경관개선 프로그램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

이 마을은 지난 2023년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주관한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된 마을로 2026년까지 국비 14억원을 포함, 총사업비 19억원을 투입하여 마을의 생활 인프라 확충과 주거환경 개선 등을 지원하여 농촌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주민과 자원봉사자가 협업하여 지속 가능한 경관개선을



관촌 공공임대아파트 조감도

장기적인 지역 정착과 자산 형성을 가질 수 있게 된다.

또한, 반할주택 입주민은 표준임대료의 50% 수준으로 주거비를 절감할 수 있다.

입주 후 자녀가 출생할 경우 임대료 전액 면제받는 혜택까지 받을 수 있어 청년층의 결혼과 출산을 유도하고, 지역 내 인구 유입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단순한 주택공급 차원을 넘어 지역 산업과의 연계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효과도 노릴 수 있다.

더불어 향후 농공단지 등 관련 기업 유치와 함께 생활 편의시설 확충 등 추가적인 도시 개발과 함께 정주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는 토대가 되어 앞으로 다양한 문화시설도 건립해 나갈 전략을 준비하고 있다.

심 민 군수는 “전북형 반할주택 공모 선정은 임실의 미래를 바꾸는 첫걸음”이라며 “청년이 머물고 가족이 정착하여 모두가 살고 싶은 지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임실군이 행정 ·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목표로 진행됐으며, 백련1길 관리되지 않던 담장 및 대문에 대해 도장 작업을 함께 실시했다.

서병준 백련마을 추진위원장은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해 주민 (사)전북 희망나눔재단 자원봉사단의 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심 민 군수는 “이번 경관개선 프로그램을 통해 백련마을을 찾는 주민과 방문객이 활기차고 산뜻하게 변화된 마을의 모습을 통해 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음을 체감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지역 소식통

남원시, 춘향제 기간 무료 공영주차장 3곳 무료 개방

남원시는 30일부터 5월 6일까지 7일간, 춘향제 기간 중 관내 무료 공영주차장 3개소를 전면 무료 개방한다고 밝혔으며, 이번 조치는 춘향제를 찾는 관광객과 시민들의 주차 편의성을 높이고, 행사장 주변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남원시에는 총 59개소, 2,879면 규모의 공영주차장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 중 56개소는 평소에 무료 이용이 가능하며, 이번 무료 개방 대상은 유료로 운영 중이던 △시청주차장(197면), △도통지구 주차타워(258면), △시청4가 주차장(81면) 총 3개소로, 시는 춘향제 기간 이들 주차장을 시민과 관광객에게 전면 무료로 개방해 안전하고 편리하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관광객이 집중되는 오후 2시부터 8시까지의 혼잡 시간대에는 인력을 집중 배치해 원활한 주차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며, 주차 편의 강화를 위한 홍보 및 정보 제공도 병행된다.

/남원=김기두 기자

5월 순창사랑상품권 구매 적립 한도 한시적 상향 운영

순창군은 가정의 달을 맞아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 가계 부담 경감을 위해, 5월 한 달 동안 순창사랑상품권의 구매 한도와 적립 한도를 한시적으로 상향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상품권 구매 한도는 기존 월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적립 한도는 월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각각 확대된다. 이를 통해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 내 소비 촉진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다만, 이번 확대는 모바일과 카드형 상품권에만 적용되며, 지류 상품권은 모두 소진돼 구매가 불가능하다.

상품권 구입은 모바일의 경우 ‘지역사랑상품권(CHAK)’ 앱을 통해 가능하며, 카드형 상품권은 농협, 우체국, 신한, 새마을금고를 방문해 발급받을 수 있다.

또한, 5월 1일부터 모바일 순창사랑상품권의 회원 가입과 구매 가능 연령을 기존 만 19세 이상에서 만 14세 이상으로 확대한다.

/순창=이양원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춘향전의 무대

남원 광한루

광한루는 조선시대 이름난 학회경승이 남원에 유배되었을 때 지은 것으로 최유현 광통루(廣通樓)라 불렀다고 한다. 광한루(廣漢樓)라는 이름은 세종 16년(1434) 정인지가 고직 세운 뒤 바꾼 이름이다. 지금 있는 건물은 정유재란 때 불에 탄 것을 인조 16년(1638) 다시 지은 것으로 부속건물은 경조 때 세운 것이다.

규모는 앞면 5칸·옆면 4칸이며,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여덟 팔(A)자 모양을 한 팔작지붕이다. 누마루 주변에는 난간을 둘렀고 기둥 사이에는 4면 모두 문을 달아 놓았는데, 여름에는 사방이 트이게끔 안쪽으로 질 수 있도록 해 놓았다. 또한 누의 동쪽에 있는 앞면 2칸·옆면 1칸의 부속건물은 주위로 툇마루와 난간을 둘렀고 안쪽은 온돌방으로 만들어 놓았다. 뒷면 가운데 칸에 있는 제단은 조선 무기에 만든 것이다.

춘향전의 무대로도 널리 알려진 곳으로 넓은 인공 정원이 주변 경치를 한층 돋우고 있어 한국 누정의 대표가 되는 문화재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출: 문화재청 제공〉

전주매일 캠페인